

## 일본 경제 동향 (2014. 9월)

### 경기회복세 주춤, 엔저 가속

#### < 목 차 >

<b>I . 일본 경제 지표 .....</b>	<b>1</b>
<b>II . 최근 일본 경제동향 및 전망 .....</b>	<b>2</b>
1. 경기회복세 주춤 .....	2
2. 8월 수출입 모두 감소 .....	7
3. 고주가·고금리·엔저 .....	9
4. 해외직접투자 증가세로 반전 .....	11
<b>III . 일본의 주요 정책 .....</b>	<b>13</b>
1. 최근 엔저 가속 문제 .....	13
<b>IV . 한일 경제관계 분석 .....</b>	<b>16</b>
1. 8월 대일무역적자 소폭 확대 .....	16
2. 한일간 서플라이 체인 구축을 위한 산업협력 .....	18
3. 8월 일본인 한국방문자 수 크게 증가 .....	20
<b>V . 참고 자료 .....</b>	<b>21</b>
1. 주요기관 연구보고서 .....	21
2. 일본의 주요 경제 일정 .....	23

## I. 일본 경제 지표

구 분	2012	2013	2013	2014		2014		
			4/4	1/4	2/4	6월	7월	8월
GDP증가율(연율,%)	1.5	1.5	-0.5	6.0	△7.1(p)	-		
경기동향지수(2010=100)	-	-	111.5	-	-	109.7	109.9	-
광공업생산증가율(전기비,%)	0.6	△0.8	1.9	2.9	△3.8	△3.4	0.4	-
소비자물가	△0.1	0.4	0.3	0.2	2.3	0.0	0.1	-
상승율(%)								
실업율(%)	△0.1	0.4	1.1	1.3	3.3	3.3	3.3	-
수출(조엔)	4.3	4.0	3.9	3.6	3.6	3.7	3.8	-
수입(조엔)	63.7	69.8	18.1	17.5	17.6	5.9	6.2	5.8
무역수지(조엔)	70.7	81.3	21.8	22.4	20.2	6.8	7.2	6.8
무역수지(조엔)	△8.4	△11.5	△3.7	△5.0	△2.6	△0.8	△1.0	△1.0
경상수지(조엔)	4.8	3.3	△1.4	△0.9	0.3	△0.4	△0.4	-
해외직접투자(조엔)	9.8	13.2	3.1	2.6	2.0	0.7	0.8	-
환율	달러	80.1	97.7	100.5	102.8	102.1	102.1	103.0
	원화(100엔)	1,413	1,123	1035.7	1,039	1,008.2	999.0	1,003
금리(10년물,%)	1,413	1,123	1035.7	1,039	1,008.2	999.0	1,003	996
주가(닛케이)	0.78	0.72	0.64	0.63	0.60	0.59	0.54	0.51
	9,612	13,651	15,388	14,958	14,655	15,131	15,379	15,359

주: (p)는 2차 속보치, 자료: 일본 내각부, 재무성, 총무성, 후생노동성, 한국은행

### □ (경기판단) 경기회복 주춤

- '14.7월 경기동향지수(2010년=100)는 109.9로 0.2p 상승

### □ (소비자물가)

- '14.7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0.1% 상승

### □ (무역수지) 8월 수출입 모두 감소한 가운데 전월 수준 유지

- '14.8월 무역적자는 1조 엔으로 전월과 같은 수준

### □ (환율) '14.8월 엔화환율은 전월보다 엔저

- '14.8월 엔화의 대미달러환율 평균치는 103.0엔으로 전월대비 1.3% 엔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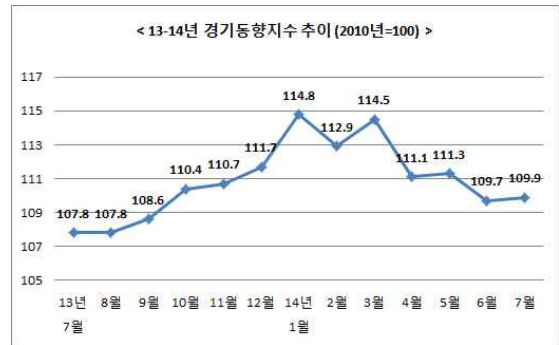
\* '14.8월 엔화의 대원화환율 평균치는 100엔당 996원으로 0.7% 엔저·원고

## Ⅱ. 최근 일본 경제동향 및 전망

### 1. 경기회복세 주춤

#### □ (총 합)

- 경기 기조에 대한 일본 내각부의 판단이 4개월 연속 답보상태를 유지한데 이어, 9월 월례경제보고에서도 5개월만에 경기판단을 하향수정
- ‘14.7월 일치지수로 본 경기동향지수(2010년=100)는 109.9로 전월보다 0.2p 상승, 2개월만에 개선되기는 했으나, 광공업생산의 증가세가 약하고 소매업 판매가 감소



자료 : 내각부

- 더욱이 최근 일본의 경기회복이 주춤하고 있음
- 개인소비는 소비세 인상에 따른 가수요의 반작용 영향은 감소하고 있지만, 태풍과 호우 등 기후불순과 실질임금의 감소 등이 소비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
- 설비투자가 경기의 지지목 역할을 하고 있으나, 소비세 인상의 악영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투자에서 소비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필요한 상황

#### □ (전 망)

- 2분기 GDP성장율이 -6.8%에서 -7.1%로 하향 수정됨에 따라 일부 일본의 민간연구기관들은 2014년도 성장률 전망을 하향 수정했으나, 소비세 인상 후 소비감소는 일시적이며 경기는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임
- 3분기 이후에는 소비의 회복과 설비투자의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
- 그러나 수출은 2014년도 후반 이후에도 정체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

#### □ (시사점)

- 일본정부는 2014년 3분기 GDP성장율에 의해 2015년 소비세의 10% 재인상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, 기업의 설비투자가 계속 증가, 물가상승분 이상의 임금인상 기대가 형성될 것인지 여부가 초점이 될 것임

## □ (GDP) 2014. 2분기 실질 성장률 -7.1%로 하향수정

- 일본 내각부는 2014년 2분기 실질 GDP성장율을 전기비 연율 -6.8%에서 -7.1%로 하향수정
  - 설비투자는 전기비 5.1% 감소로 1차 속보치보다 2.6p 하락, 8월 1차 속보치 발표 후 운수 및 금융업을 중심으로 설비투자가 예상보다 컸기 때문임
  - 개인소비는 5.1% 감소로 0.1p 하락, 의류와 자동차 판매의 부진한 영향이 컸음
  - 주택투자도 1차 속보치보다 0.1p 하락한 10.4% 감소,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소비 감소폭이 보다 컸음

### < 일본의 실질GDP 성장률(%) >

구 분	2012	2013	2013		2014			
			7-9월	10-12월	1-3월	4-6월	7-9월	10-12월
전기비	1.5	1.5	0.4	-0.1	<b>1.5</b>	-1.8	-	-
(전기비연율)			(1.8)	(-0.5)	<b>(6.0)</b>	(-7.1)	-	-
(전년동기비)			(2.3)	(2.5)	<b>(3.0)</b>	(-0.1)	-	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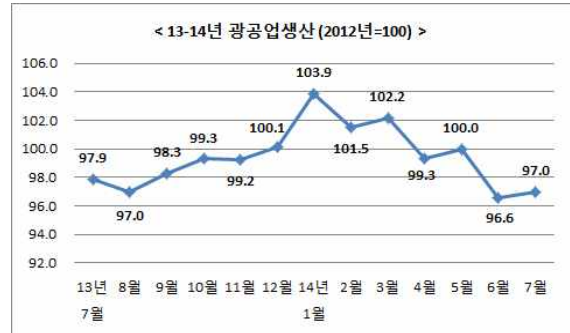
자료: 일본 내각부

- 일본의 41개 민간싱크탱크 평균치에 따르면, 2014년 3분기에는 4%, 그 후도 2015년까지 2% 전후의 성장률을 유지, 소비세 인상 후 소비감소는 일시적이며 경기는 완만하나 회복세를 보일 것임
  - 3분기 이후에는 소비의 회복과 설비투자의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
  - 그러나 수출은 수익중시의 기업경영에 따른 수출가격 동결, 생산의 해외이전 영향으로 2014년도 후반 이후에도 정체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
- 일본정부는 디플레이션 탈출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경기회복을 지탱해주기 위한 경제대책을 검토
  -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과 2015년도 당초 예산 2단계에 걸쳐 재정지출을 고려
  - 경제·물가 상황 여하에 따라 일본은행이 금융완화를 실시할 것이라는 관측도 높아지고 있음

## □ (광공업생산) 7월 증가세로 반전되었으나 0.4%의 소폭 증가

○ '14.7월 광공업생산은 2개월만에 증가세로 반전되었으나, 소비세 인상에 따른 가수요의 반작용 영향으로 전월비 0.4%의 소폭 증가에 그침

- 전체 15개 업종 중 8개 업종이 증가, 6개 업종이 감소한 가운데, 범용·생산용·업무용 기계가 생산증가를 주도한 반면, 자동차 생산은 감소



자료: 경제산업성

○ 당분간은 소비세 인상에 따른 가수요의 반작용 영향이 계속될 것이나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

- 제조공업생산 예측조사에 의하면, 8월에는 1.3%, 9월은 3.5% 증가 예상

## □ (소 비) 기후 불순 영향으로 감소세로 반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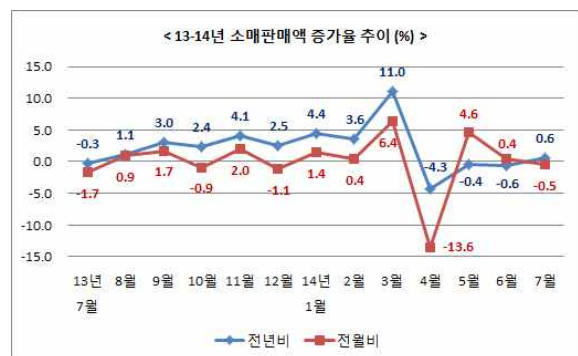
○ 7월 소매업판매액이 전월비 0.5% 감소

- 소비세인상에 따른 가수요의 반작용 영향은 완화되고 있으나, 태풍과 호우 등 기후 불순의 영향으로 소비가 감소
- 다만 백화점 판매액은 회복되고 있음

○ 수요측 통계(가계조사 등)를 감안한 소비종합지수도 7월에 전월비 0.6% 감소

- 전반적으로 소비자마인드의 회복세가 더뎠고 있음

○ 앞으로 고용소득 환경이 개선되는 가운데, 회복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지배적이나, 가수요의 반작용으로부터의 회복은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어, 반작용 영향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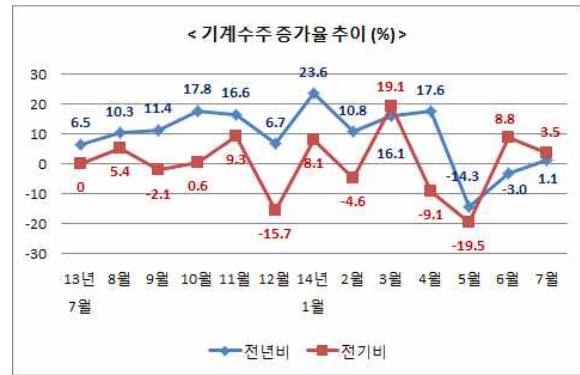


자료: 경제산업성

## □ (설비투자) 기계수주액 2개월 연속 증가, 경기의 지지목 역할

○ '14.7월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기계수주액(선박, 전력을 제외한 민간수요)은 전월비 3.5% 증가

- 6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함으로써 설비투자가 경기의 지지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
- 제조업은 20.3%의 높은 증가율 보인 가운데, 화학공업 관련 기계와 항공기 및 공작기계 등의 수주가 증가
- 비제조업은 4.3%의 감소를 보인 가운데, 건설업과 리스업 관련 건설기계 수주가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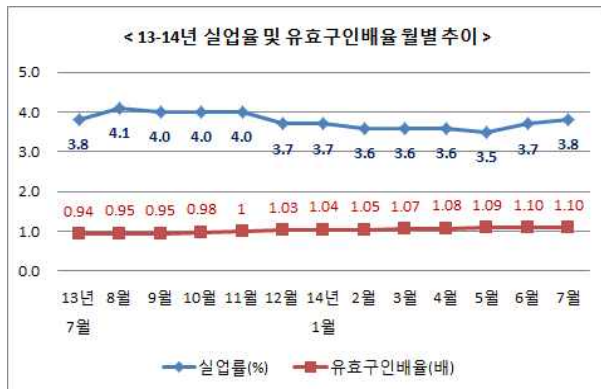


자료: 경제산업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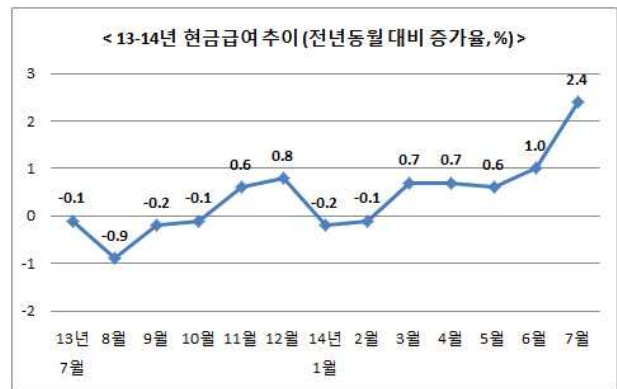
- 일본은행 단관(短観 : 2014년 6월), 법인기업통계경기예측조사(2014년 7~9월)등에 의하면 제조업의 설비투자는 2014년도에 증가
- 설비과잉감이 남아있기는 하나 기업수익의 개선 등을 배경으로 설비투자의 증가세가 계속될 전망

## □ (고 용) 고용상황은 여전히 개선

- 2014년 7월 완전실업율은 3.8%로 6월보다 0.1p 상승
  - 여성 구직자들의 구직이 늘어난 것이 주된 원인
  - 취업자 수는 6,357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.7% 증가
- 7월의 유효구인배율은 1.10배로 6월과 같은 수준으로 여전히 일손이 부족하여 고용이 개선되고 있음
  - 신규 구직자수는 4.5% 증가, 11개 업종 중 8개 업종이 늘어났는데, 의료복지와 교육학습지원 관련 구인수가 11.4%의 높은 증가를 보임
- 임금은 정기급여의 건조세와 함께 현금급여총액이 전년동월대비 2.4% 증가, 전월대비로는 0.7% 증가
- 그러나 임금증가율이 물가상승율에 못 미치고 있어 실질임금은 상승하지 않고 있으나, 앞으로 양호한 고용환경이 임금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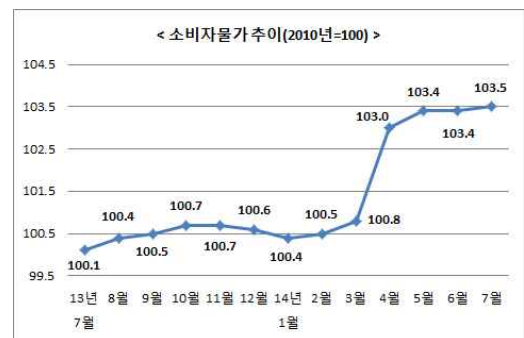
자료: 후생노동성



자료: 후생노동성

## □ (소비자물가) 7월 전월비 0.1% 상승

- ‘14.7월 소비자물가상승률(생선·식품을 제외한 코어 CPI)은 전월 대비 0.1%로 전월보다 상승
  - 전년 동월 대비로는 3.3% 상승, 14개월 연속 상승
  - 그러나 일본은행은 소비세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효과를 2.0%로 보고 있어, 소비세 인상의 영향을 제외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.3%
- 품목별로는 에너지가 전체로 전년 동월 대비 8.8%, 가전제품 중 에어컨이 11.9%, TV가 11.8%로 상승폭이 큼
- 최근 소비자 심리의 회복으로 가격인상(소비세 인상분의 가격전가)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, 달러당 109엔대에 육박하는 엔저 가속에 따라 앞으로 물가상승압력이 더욱 강해질 전망



자료: 총무성

## 2. 8월 수출입 모두 감소

□ (총 합) '14.8월 수출입 모두 감소한 가운데, 무역적자는 1조 엔으로 7월과 같은 수준

- '14.8월 무역수지는 26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적자폭이 전월과 같은 1조 엔
- 對중국 무역적자는 전월의 3,216억 엔에서 2,339억 엔으로 축소된 한편, 對미국 무역흑자는 전월의 4,837억 엔에서 3,846억 엔으로 축소

< 2014년 8월 일본의 수출입 (단위: 조엔, %) >

	2014.7월			2014.8월			2014.1-8월	
	금액	증감		금액	증감		금액	증감
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기비
수 출	6.2	3.9	5.1	<b>5.8</b>	-1.3	<b>-6.5</b>	46,791	24.1
수 입	7.2	2.3	5.9	<b>6.8</b>	-1.5	<b>-5.6</b>	56,398	7.4
무역수지	-1.0	-0.07	0.1	<b>-1.0</b>	0.02	<b>-0.06</b>	-9,607	2,791

주 : 수출, 수입의 증감은 %, 무역수지의 증감은 조엔

자료 : 일본 재무성

□ (수 출) 금액, 물량 모두 감소

- '14.8월 수출은 7월보다 전월비 6.5% 감소한 5.8조 엔
- 수출 물량도 전월보다 2.9% 감소
- 수출액 기준으로 5대 수출 품목은 자동차, 반도체 등 전자부품, 철강, 자동차부품, 과학광학기기 순이며, 전월과 비교하여 플라스틱 대신에 과학광학기기가 포함
- 5대 수출품목 중 반도체 등 전자부품, 철강, 과학광학기기 등 3개 품목이 전월보다 수출이 증가한 반면,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의 수출은 각각 22.4%, 13.7%의 큰 폭으로 감소
- 주요 수출 지역·국가에 대한 수출은 모두 감소한 가운데, 對 미국 수출이 9.4% 감소하여 감소폭이 가장 큼
- 엔저하에서도 일본의 수출 물량이 감소하는 원인은 과거 엔고기간 중 생산거점의 해외이전으로 현지생산에 의한 수출대체, 환율변동에 의한 수출가격 전가(달러화표시 수출가격 인하)의 어려움 등임



< 2014년 8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출 (단위: 억엔, %) >

순위	품목	2014.7월			2014.8월			2014.1-8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 (전년동기비)
	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월비	전월비		
1	자동차	9,950	8.1	8.1	7,718	-2.9	-22.4	69,145	4.1
2	반도체 등 전자부품	3,143	-0.7	8.3	3,263	0.9	3.8	23,326	-0.4
3	철강	3,112	-4.2	-6.5	3,190	-1.7	2.5	25,711	1.3
4	자동차부품	3,065	3.4	8.7	2,644	-7.2	-13.7	22,454	-1.0
5	과학광학기기	2,034	9.9	3.1	2,043	4.0	0.4	15,463	7.9

자료: 일본 재무성

< 2014년 8월 일본의 주요 지역·국가별 수출 (단위: 억엔, %) >

순위	국가	2014.7월			2014.8월			2014.1-8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 (전년동기비)
	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월비	전월비		
1	중국	11,328	2.6	3.4	11,160	-0.2	-1.5	85,818	6.5
2	미국	11,283	2.1	1.9	10,226	-4.4	-9.4	86,151	2.6
3	ASEAN	9,296	3.7	3.1	8,900	-0.6	-4.3	71,101	-1.1
4	EU	6,471	10.2	7.7	5,964	5.6	-7.8	49,449	11.5
5	한국	4,381	-7.7	3.8	4,307	-6.1	-1.7	35,265	-4.7
6	대만	3,674	11.7	4.9	3,394	3.3	-7.6	27,662	2.4

자료: 일본 재무성

□ (수 입) 기후불순 영향으로 에너지 수입 감소

- '14.8월의 수입은 7월보다 5.6% 감소한 6.8조 엔
  - 수입 물량도 전월 대비 4.6% 감소
- 수입이 감소된 데는 태풍과 호우 등 기후 불순으로 인한 에너지 수요 감소가 주된 요인
- 수입액기준으로 5대 수입 품목은 원유, 액화천연가스, 의류 및 동 부속품, 석유제품, 반도체 등 전자부품 순이며, 의류 및 동 부속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감소
  - 액화천연가스의 감소폭이 전월비 11%로 가장 큼
- 주요 수입대상 지역·국가로부터의 수입은 모두 감소한 가운데,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감소폭이 전월비 13.7%로 가장 큼

< 2014년 8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입 (단위: 억엔, %) >

순위	품목	2014.7월			2014.8월			2014.1-8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 (전년동기비)
	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월비	전월비		
1	원유	11,701	6.9	10.1	11,401	-5.2	-2.6	95,814	4.0
2	액화천연가스	6,673	7.4	14.3	5,942	3.3	-11.0	51,682	10.0
3	의류·동부속품	2,593	-4.6	25.4	3,062	-8.0	18.1	20,153	-0.5
4	석유제품	2,377	23.3	7.6	2,330	7.8	-2.0	18,531	5.8
5	반도체 등 전자부품	2,210	-0.8	-5.0	2,255	3.7	2.0	18,653	21.3

자료: 일본 재무성

< 2014년 8월 일본의 주요 지역·국가별 수입 (단위: 억엔, %) >

순위	국가	2014.7월			2014.8월			2014.1-8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 (전년동기비)
	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월비	전월비		
1	중국	14,544	-2.5	-1.0	13,499	-5.3	-7.2	120,617	9.3
2	ASEAN	10,322	-0.1	9.1	9,296	-0.9	-10.0	80,716	7.0
3	미국	6,446	6.2	2.4	6,371	10.7	-1.2	49,614	11.2
4	EU	6,966	0.9	6.7	6,308	-1.5	-9.3	53,873	8.9
5	호주	4,651	0.4	15.1	4,172	-4.6	-10.2	33,893	2.6
8	한국	3,037	-0.1	8.9	2,621	-5.8	-13.7	23,226	2.6

자료: 일본 재무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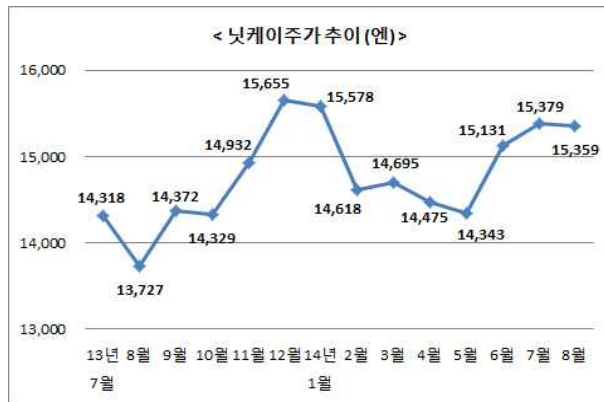
### 3. 고주가 · 고금리 · 엔저

#### □ (주 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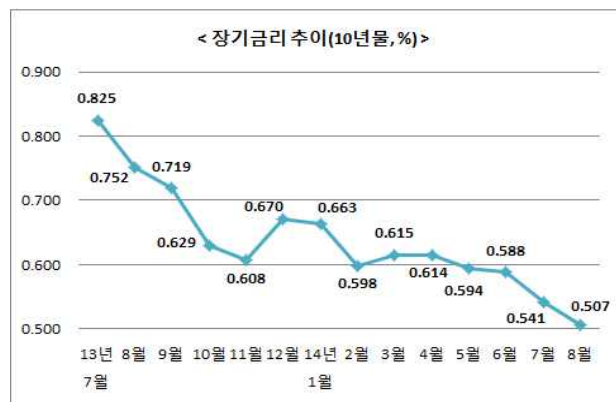
- ‘14.8월 평균 주가는 전월보다 0.1% 하락한 15,359엔
- 그러나 9월 들어서는 주가상승과 엔저 등의 영향으로 9월 19일 기준으로 16,300엔대까지 상승

#### □ (금 리)

- ‘14.8월 10년물 장기국채금리는 미국 금리 등의 영향으로 전월보다 6.3% 하락한 0.507%
- 9월 들어서는 주가상승과 엔저 등의 영향으로 9월 19일 기준으로 0.560%까지 상승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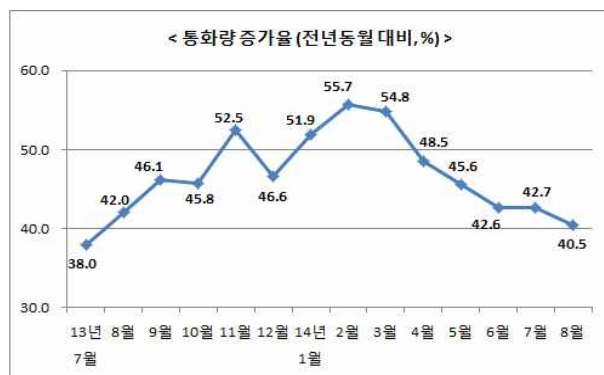
자료: 일본경제신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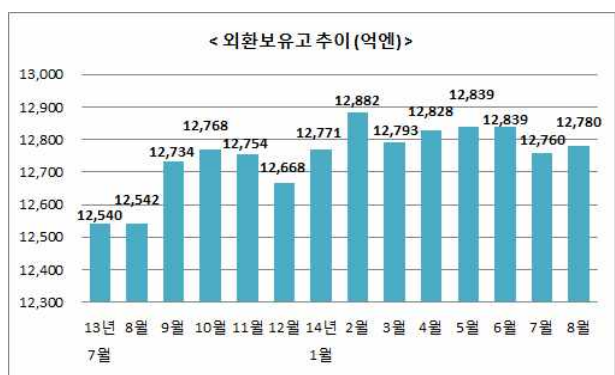
자료: 일본상호증권

## □ (통화량)

- ‘14.8월 머니트리베이스(평잔)기준, 통화량증가율은 일본은행의 자산매입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년 동월 대비 40.5%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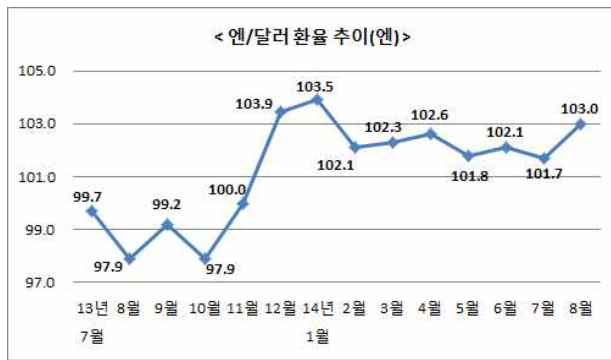
자료: 일본은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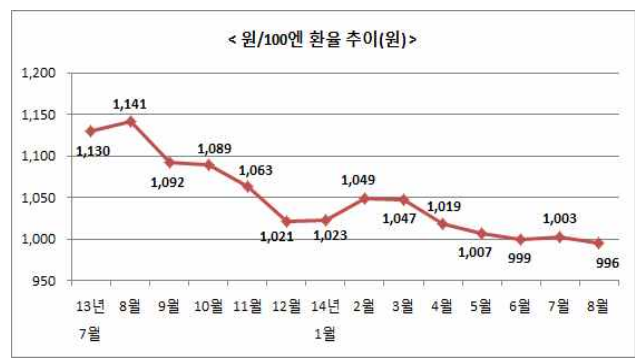
자료: 재무성

## □ (환율)

- ‘14.8월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평균치는 103.0엔으로 7월보다 1.3% 엔저
  - 9월 들어서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(FOMC)의 조기 정책금리 인상 논의 등으로 9월 19일 기준 108엔대 후반까지 엔저 가속
- 2014년부터 102엔대를 유지하던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미국의 경기회복 및 조기 금리인상 논의, 일본 소비세 인상 등으로 인한 일본 경기의 일시적인 침체 및 무역적자 계속 등으로 엔저 기조가 유지될 전망
- ‘14.8월 엔화의 대 원화 환율 평균치는 100엔당 996원으로 7월의 1,003원에 비해 0.7% 엔저



자료: 일본은행



자료: 한국은행

## 4. 해외직접투자, 증가세로 반전

### □ (동향)

○ '14.7월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7,828억 엔으로 전월대비 15.9% 증가

<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(국제수지기준, 억엔, %) >

		2013	2014				
			2월	3월	4월	5월	6월
금 액		131,946	6,339	7,376	6,096	7,356	6,757
증가율	전기비	34.9	-49.6	16.4	-17.4	20.7	-8.1
	전년동기비	34.9	56.7	-21.0	-59.4	-18.4	-21.4
							7월
							7,828
							15.9
							-79.0

자료: 일본 재무성

○ 아시아 지역과 대양주 지역을 제외한 주요 지역 및 국가에 대한 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임

- 중남미 지역에 대한 직접투자가 226.1%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
- 유럽과 북미 지역에 대한 투자도 각각 66.5% 및 50.7%의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임
- 반면 1.1%의 감소를 보인 아시아 지역중에서도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45.1%의 큰 감소폭을 보인 반면,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122.9%의 큰 폭의 증가를 보임

< 2014년 7월 일본의 주요 지역·국가별 해외직접투자 (국제수지 기준, 억엔, %) >

	2013년	2014.6월			2014.7월	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
			전월비	전년동월비		전월비	전년동월비
대세계	131,946	6,757	-8.1	-21.4	7,828	15.9	-79.0
아시아	39,294	2,834	86.4	-17.0	2,803	-1.1	20.7
중 국	8,855	834	75.2	20.5	459	-45.0	-25.1
한 국	3,209	201	1,240.0	-41.4	448	122.9	35.8
북 미	45,698	1,125	-80.0	-14.1	1,695	50.7	-93.0
미 국	42,933	1,053	-45.4	-18.0	1,550	47.2	-93.6
중남미	9,902	69	-80.6	-81.6	225	226.1	-93.7
유 럽	31,567	1,596	-49.1	-30.7	2,658	66.5	-59.4
대양주	5,895	682	-	-26.6	171	-75.0	-78.7

자료: 일본 재무성

□ (최근 일본 해외직접투자의 특징 )

-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, 2013년 말 기준,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잔고는 118조 엔으로 최초로 100조 엔을 상회
  - 미국과 유럽의 경기회복으로 '13년 신규투자가 과거 최고를 기록한 것이 주된 원인이며, 금융 등 비제조업(LIXIL그룹, 소프트뱅크 등의 대형투자)이 투자를 견인
- 최근 일본 해외직접투자의 특징은 2가지로 집약
  - 첫째, M&A형 해외직접투자가 크게 증가, '13.4월~'14.3월 기간 중 521건으로 최고치 기록
    - 일본기업의 해외기업 M&A는 자원확보형 투자로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이후 원전 가동 중단을 계기로 일본기업의 해외 자원확보형 투자 진출이 확대
  - 둘째, 엔저에도 불구하고, 일본기업의 생산거점 이전이 수반되는 해외직접투자가 증가
    - 엔저에도 해외로 생산거점 이전이 증가하는 이유는 내수시장의 한계와 생산단가 저하를 통한 경쟁력 확보, 현지시장 선점을 통한 시장 확대 등 때문임

### Ⅲ. 일본의 주요 정책

#### 1. 최근 엔저 가속 문제

- 엔화의 대미달러환율이 2014년 9월 5일 달러당 105엔대로 하락, 9월 18일에는 달러당 108엔 87전으로 약 6년만에 엔저 기록

#### □ 배경

##### ① 미일간 경기상황 차이와 금리차 확대 예상

- 미국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(FOMC)가 이르면 2014년 10월중 양적완화를 종료하고 정책금리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반면, 일본은 일본은행이 대규모 양적완화를 계속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시장에서는 추가 금융완화 관측도 있음
  - 특히 일본은행이 대량으로 국채를 매입하고 있어 금리의 상승여지가 적다고 판단하여, 미일간 금리차 확대를 예상한 엔매도 압력이 강함
- 엔저에 발동을 건 것은 미국 경기의 회복에 의한 강한 달러를 시장이 의식했기 때문임
  - 미국의 출구전략으로 장기금리가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이 파급, 달러매입이 확대되고 있음
  - 미국의 금리가 상승하면 초저금리의 엔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도 금리가 높은 달러에 투자하는 쪽이 득이 되는 것은 당연, 외환시장에서 엔을 매도하고 달러를 매입하는 움직임이 우세
- 엔매도세가 강한 배경에는 일본 경기회복세의 둔화로, 경기를 부양시켜 소비세 인상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일본은행이 추가완화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엔매도를 부추김

##### ② 일본의 무역적자

- 26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대규모 무역적자로 일본의 수입기업에 의한 엔매도가 확대되고 있는 측면도 있음

#### □ 일본경제에 미치는 영향

- 엔저는 일본경제에 수출증가 등의 플러스 영향을 가져오는 반면, 에너지가격의 상승으로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는 리스크도 있음

## ① 플러스 효과

### ○ GDP

- 닛세이 연구소에 의하면, 10% 엔저시 일본의 GDP가 0.2% 증가
- 그러나 자동차 등 생산거점의 해외이전으로 엔저가 일본경제를 부양시키는 힘은 이 전보다 약해지고 있음
- 일본 내각부가 산출한 수출물량지수는 7월에도 90.4로 2013년 1월(90.7)에 비하여 횡보상태에 있음

### ○ 기업이익

-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자회사의 엔화표시 수익도 확대
- 특히, 대기업과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수출대기업에 영업이익 증대효과가 큼
- 달러당 105엔 수준이 계속되면 도요타자동차 등 주요 20개 수출기업들의 2014년도 하반기 영업이익이 2,500억엔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계산

### ○ 주가

- 엔저는 아베노믹스로 상승한 주가의 상승요인이기도 한데, 시장에서는 계속되는 엔저로 연말에는 주가가 17,000엔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음

### ○ 디플레이션 탈출

- 엔저는 수입물가 상승(8월, 4.5%), 소비자물가상승(7월, 소비세인상분 제외 1.3%)을 통해 디플레이션 탈출을 촉진

## ② 마이너스 효과

### ○ 중소기업

- 미즈호은행의 추계에 의하면 10엔 엔저로 상장기업은 약 2조엔 규모의 이익이 증가하는 반면, 중소하청 등을 포함한 비상장기업은 1조 3,000억엔 이익 감소

### ○ 가계

- 소비세인상으로 가계의 구매력이 감소된 데다가 엔저에 의한 연료가격 상승이 전기 가스요금 상승으로 물가가 더 오르게 되면 소비가 감소하게 됨

## □ 전망

- 시장에서는 엔화환율은 2014년 말 시점에서 105~109엔, 일본의 주가는 17,200~17,800 엔대에서 추이할 것으로 전망
  - 일각에서는(미쓰비시도쿄은행) 금년 중으로 110엔, 내년에는 115엔까지 엔저가 가속될 것으로 보고 있음

## □ 시사점

- 엔화 환율의 적정수준을 둘러싼 논의 활발해 지고 있음
  - 넷케이 베리타스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, 일본경제와 기업 입장에서 바람직한 환율 수준은 110~115엔
  - 현 상태라면 2007년의 엔저수준 120엔대까지도 엔저가 가속될 가능성도 있는데, 일본 경제계에는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음
  - 그 배경에는 현재 일본경제 상황이 2007년과는 크게 달라, 엔저가 반드시 엔저이익을 가져오고 이것이 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임
    - 생산거점의 해외이전이 진전되고, 일본경제에서 점하는 제조업의 비중이 후퇴
    - 제조업의 대GDP비율이 18%로 1990년 이후 약 4%p 저하, 대신 서비스업의 대GDP 비율이 20%에 달하는 등 엔저 이익이 직접 나타나기 어려운 산업이 확대
    - 한편, 엔저가 에너지 등 수입물가 상승을 통해서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음
  - 과거에 엔고가 일본경제의 저력을 시험했다면, 앞으로는 엔저가 일본경제의 저력을 시험하는 구조로 일본경제가 바뀌고 있음
- 환율하락 효과의 유의점과 극대화
  - 급격한 엔저는 수입가격 상승 → 물가상승을 유발하여, 소비세인상으로 주춤한 경기회복세에 악영향
  - 아베노믹스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엔저가 기업수익의 임금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경제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위기



## IV. 한일 경제관계 분석

### 1. 8월 대일무역적자 소폭 확대

#### □ (총 합)

- ‘14.8월 대일무역적자는 1,685백만 달러로, 7월에 비해 54백만 달러 확대
- 대일 수출은 2,538백만 달러, 대일 수입은 4,223백만 달러

< 2014년 8월 對日 수출입 및 무역수지 (단위: 백만달러,%) >

	2014.7월			2014.8월			2014.1-8월	
	금액	증감		금액	증감		금액	증감
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기비
대일수출	2,999	5.9	17.2	2,538	-8.1	-15.4	21,727	-4.3
대일수입	4,630	-9.5	6.0	4,223	-13.0	-8.8	35,640	-12.0
무역수지	-1,631	-648	-175	-1,685	-408	54	-13,913	-3,863

주)수출, 수입의 증감은 %, 무역수지의 증감은 백만달러

자료: 한국무역통계

#### □ (대일 수출)

- ‘14.8월의 대일 수출은 7월보다 15.4% 감소
- 동 기간 중 한국의 총수출은 4.1% 감소, 일본의 수입도 5.6% 감소하기는 했으나 대일수출의 감소폭이 큰 것은 엔저·원고로 인한 대일수출경쟁력의 약화를 시사

	대일 수출증가율(%)		총수출증가율(%)		일본의 수입증가율(%)	
	전년동기비	전기비	전년동기비	전기비	전년동기비	전기비
2014. 8월	-8.1	-15.4	-0.2	-4.1	-1.5	-5.6
2014.1-8월	-4.3	-	2.5	-	7.4	-

- ‘14.8월 대일 수출 10대 품목의 변화를 전월대비 증가율로 보면, 금속광물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대일수출이 감소
- 산업용전자제품(-37%), 석유화학제품(-29.2%), 기계요소공구·금형(-25.6%), 수송기계(-22.7%), 정밀화학제품(-22.4%)의 대일수출이 20% 이상의 큰 폭의 감소를 보임

< 2014년 8월 대일 수출 10대 품목 (단위: 백만달러, %) >

순 위	품목명	2014.7월			2014.8월			2014.1~8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기비
	총계	3,006	5.9	17.4	2,538	-8.1	-15.6	21,727	-4.3
1	광물성연료	669	37.5	57.8	588	-20.6	-12.1	4,497	-18.8
2	철강제품	347	7.3	1.5	314	10.9	-9.5	2,770	19.6
3	전자부품	194	-26.2	-4.4	181	-22.8	-6.7	1,616	-13.3
4	산업용전자제품	260	-7.3	55.7	164	-30.7	-37.0	1,814	-13.8
5	석유화학제품	192	15.5	16.3	136	-6.2	-29.2	1,116	-13.6
6	정밀화학제품	143	8.5	11.7	111	-1.5	-22.4	1,007	3.6
7	금속광물	88	-28.1	-1.1	97	8.2	10.3	716	-16.0
8	수송기계	119	-10.4	13.3	92	7.7	-22.7	853	11.3
9	농산물	98	5.3	1.0	88	3.3	-10.2	734	6.5
10	기계요소공구·금형	117	35.3	15.8	87	13.0	-25.6	764	18.5

자료: 한국무역협회

## □ (대일 수입)

- ‘14.8월의 대일 수입은 7월보다 8.8% 감소

	대일 수입증가율(%)		총수입증가율(%)	
	전년동기비	전기비	전년동기비	전기비
2014. 8월	-13.0	-8.8	3.1	-6.6
2014. 1~8월	-12.0	-	3.1	-

- ‘14.8월 대일 수입 10대 품목의 변화를 전월대비 증가율로 보면, 전자부품, 기초산업 기계, 정밀기계 등 3개 품목을 제외한 7개 품목이 7월보다 대일수입이 감소
  - 감소품목 중 산업기계의 감소폭이 26.4%로 가장 크고 이어 정밀화학제품(-14.4%), 철강제품(-12%), 석유화학제품(-10.8%), 산업용전자제품(-10%)등이 10% 이상의 감소폭을 보임

< 2014년 8월 대일 수입 10대 품목 (단위: 백만달러, %) >

순 위	품목명	2014.7월			2014.8월			2014.1-8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기비
	총계	4,629	-9.5	6.6	4,223	-13.0	<b>-8.8</b>	35,640	-12.0
1	철강제품	759	-1.4	12.9	668	-7.0	<b>-12.0</b>	5,660	-9.9
2	전자부품	514	-11.9	5.5	542	-5.4	<b>5.4</b>	4,001	-14.0
3	석유화학제품	574	3.3	27.3	512	-4.7	<b>-10.8</b>	3,979	-14.0
4	정밀화학제품	381	-0.1	7.0	326	-5.4	<b>-14.4</b>	2,893	-3.7
5	기초산업기계	274	-23.3	-3.2	280	-35.0	<b>2.2</b>	2,331	-23.7
6	플라스틱제품	254	-7.9	8.5	229	-19.6	<b>-9.8</b>	1,930	-13.7
7	수송기계	217	13.7	7.4	202	23.4	<b>-7.0</b>	1,651	5.2
8	산업용전자제품	219	-15.6	-22.4	197	-5.5	<b>-10.0</b>	1,931	6.4
9	산업기계	250	-7.7	19.6	184	-2.3	<b>-26.4</b>	1,607	-3.0
10	정밀기계	145	-54.9	-25.7	158	-42.7	<b>9.0</b>	1,628	-18.2

자료: 한국무역협회

## 2. 한일간 서플라이 체인 구축을 위한 산업협력

□ (동향) : ‘14.2분기 일본의 대한투자, 감소로 반전

○ ‘14.2분기 일본의 대한투자는 403백만 달러로 전기 대비 46% 감소

- 이는 전체 외국인투자증가율이 4.1% 증가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
- 건수로도 19.2% 감소

○ 한편, 2014년 상반기 중 일본의 대한투자는 1,149백만달러로 전기 대비 14% 감소

- 이 역시 전체 외국인투자증가율이 57.8%의 큰 폭의 증가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
- 건수로도 14.8% 감소

○ 이같이 상반기, 2분기 모두 전체외국인 투자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그만큼 최근 대일투자환경의 악화 또는 악화조짐을 반영

**<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 실적 (신고기준, 단위: 건, 백만달러, %) >**

	2013년		2014.1분기		2014.2분기		2014.상반기	
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
일본의 대한투자	447 (-17.7)	2,690 (-40.8)	99 (-11.6)	746 (2.3)	80 (-19.2)	403 (-46.0)	179 (-14.8)	1,149 (-14.0)
전체 외국인투자	2,607 (-9.1)	14,548 (-10.7)	571 (-15.3)	5,062 (33.1)	583 (2.1)	5,272 (4.1)	1,154 (-9.9)	10,334 (57.8)

주: ( )내는 전기 대비 증가율, 자료: 산업부, 외국인직접투자통계

**□ (최근 한·일 기업간 산업협력 사례)**

- 일본 스미토모세이카(住友精化)가 여수산단 중흥지구에 모두 1억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결정, 2016년쯤 본격 가동 예정(2014.6.16)
  - 스미토모세이카는 조만간 한국 내 투자를 위해 법인을 신설하고, 연간 6만t 생산 규모의 고흡수성수지 제조시설을 착공할 예정
- 일본 베름사도 2014년 9월 문막 외국인투자지역의 3,300여㎡ 부지에 40억여원을 투입, 공장 착공예정(2014.7.16.)
- LG화학이 닛산자동차에 전기자동차용 차세대전지 공급 검토(2014.9.16)
  - 세계 최대 전기자동차 제조업체인 닛산에 납품함으로써 생산규모 확대, 코스트경쟁력 강화 외에도 차대형전지의 규격경쟁 경쟁우위 확보에도 유리

**□ (시사점)**

- 한일간 서플라이 체인 구축을 위한 일본기업의 對 한국 투자가 중요한데, 당분간 엔저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가 한일 관계의 경색국면이 한일경제 교류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점에서 다각적인 대응이 요구됨

### 3. 8월 일본인 한국방문자 수 크게 증가

#### □ (일본인 방한) ‘14.8월 엔저에도 일본인의 한국방문자 수 크게 증가

- ‘14.8월 일본인 입국자수는 208,147명으로 7월보다 20.8% 증가
  - 8월은 여름휴가, 방학 등으로 매년 방한 일본인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
    - \* 8월 방한 일본인 증가율(7월대비) : (‘12) 15.8%, (‘13) 29.9%, (‘14) 20.8%
  - 연령별로 보면 20세 이하의 입국자가 전월대비 20,191명 증가, 21~30세는 9,479명 증가했는데 이는 대학생들이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한국으로 여행을 온 사람이 많은 것으로 보임
    - \* 일본 대학의 여름 방학은 8~9월로 한국보다 한 달 늦음
  - 또한 41~50세도 증가폭이 큰 것은 것으로 가족 해외여행으로 가까운 한국을 선택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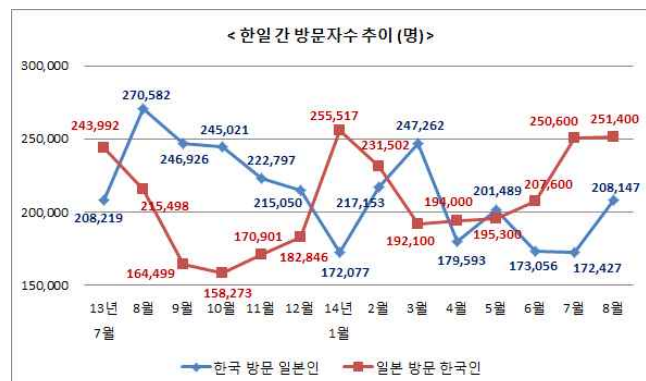
< 연령별 한국 입국 일본인(명) >

	0-20세	21-30세	31-40세	41-50세	51-60세	60세 이상
2014.7월	13,119	31,025	32,609	38,615	30,663	22,622
2014.8월	33,310	40,504	34,553	43,334	32,880	20,704
증감	+20,191	+9,479	+1,944	+4,719	+2,217	-1,918

자료 : 한국관광공사

#### □ (한국인 방일) ‘14.8월 한국인의 일본방문자 수는 소폭 증가

- ‘14.8월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수는 251,400명으로 7월보다 0.3% 증가에 그침
  - 더욱이 금년 1-8월 기간중 일본 방문 총 외국인 수는 크게 늘었는데도 (25.8%), 한국인 방문객수가 줄고 있는(-0.1%)데, 이는 여전히 일본 방사능 이슈와 한일관계의 악화 등에 의한 복합적인 영향이 가시지 않고 있음을 시사



출처 : 한국관광공사, 일본정부관광국(JNTO)

## V. 참고 자료

### 1. 주요기관 연구보고서 (2014.8월~9월)

#### □ 국내기관

- 『국제곡물유통시장 선진국 일본의 전략과 시사점』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, 2014년 9월18일  
<http://www.kjc.or.kr/jpinfo/research.html?bid=issuebrief&qry=read&no=42866>
- 『일본 소비시장의 특성과 신 마케팅전략의 필요성』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, 2014년 9월18일  
<http://www.kjc.or.kr/jpinfo/research.html?bid=issuebrief&qry=read&no=42866&no=42865>
- 『한국유통의 변화와 전망』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, 2014년 9월18일  
<http://www.kjc.or.kr/jpinfo/research.html?bid=issuebrief&qry=read&no=42865&no=42864>
- 『기사로 보는 한일 경제의 진실』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, 2014년 9월18일  
<http://www.kjc.or.kr/jpinfo/research.html?bid=issuebrief&qry=read&no=42864&no=42863>
- 『한일 외교관계 개선 전망』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, 2014년 9월18일  
<http://www.kjc.or.kr/jpinfo/research.html?bid=issuebrief&qry=read&no=42863&no=42862>
- 『일본, 창업빈국에서 창업대국을 향해 재걸음 박차』 국제무역연구원, 2014년 9월18일  
<http://iit.kita.net/>
- 『일본 전자산업 평가 및 기업의 대응』 한국은행, 2014년 9월12일  
<http://www.bok.or.kr/contents/total/ko/boardView.action?boardBean.brdid=109478&boardBean.menuid=2229&boardBean.rnum=2&menuNaviId=2229&boardBean.cPage=1&boardBean.categorycd=0>
- 『최근 일본 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평가』 한국은행, 2014년 9월5일  
<http://www.bok.or.kr/contents/total/ko/boardView.action?boardBean.brdid=109342&boardBean.menuid=2229&boardBean.rnum=4&menuNaviId=2229&boardBean.cPage=1&boardBean.categorycd=0>

- 『일본 신성장전략 내용과 우리의 대응 방안』 KOTRA, 2014년 8월29일  
[http://www.globalwindow.org/gw/publishdata/GWPDRE020M.html?BBS\\_ID=30&MENU\\_CD=M10028&UPPER\\_MENU\\_CD=M10007&MENU\\_STEP=2&ARTICLE\\_SE=OM&ARTICLE\\_ID=5019045](http://www.globalwindow.org/gw/publishdata/GWPDRE020M.html?BBS_ID=30&MENU_CD=M10028&UPPER_MENU_CD=M10007&MENU_STEP=2&ARTICLE_SE=OM&ARTICLE_ID=5019045)
- 『일본의 중국인 관광객(요우커) 유치 전략』 KOTRA, 2014년 8월27일  
[http://www.globalwindow.org/gw/publishdata/GWPDRE020M.html?BBS\\_ID=30&MENU\\_CD=M10028&UPPER\\_MENU\\_CD=M10007&MENU\\_STEP=2&ARTICLE\\_SE=OM&ARTICLE\\_ID=5018958](http://www.globalwindow.org/gw/publishdata/GWPDRE020M.html?BBS_ID=30&MENU_CD=M10028&UPPER_MENU_CD=M10007&MENU_STEP=2&ARTICLE_SE=OM&ARTICLE_ID=5018958)

## □ 일본기관

- 『기업의 해외진출과 수익력』 일본은행, 2014년 9월19일  
[http://www.boj.or.jp/research/wps\\_rev/wps\\_2014/wp14j08.htm/](http://www.boj.or.jp/research/wps_rev/wps_2014/wp14j08.htm/)
- 『엔저가 일본경제에 미치는 영향: 수출부진의 배경과 전망』 EY종합연구소, 2014년 9월18일  
<http://eyi.eyjapan.jp/knowledge/economic-research/2014-09-17.html>
- 『일본무역회월보 9월호 특집 : 일본의 성장전략과 상사』 일본무역회, 2014년 9월17일  
[http://www.jftc.jp/ebook/geppo728/\\_SWF\\_Window.html?mode=1062](http://www.jftc.jp/ebook/geppo728/_SWF_Window.html?mode=1062)
- 『메가 FTA의 조류와 일본의 신통상전략』 국제무역투자연구소, 2014년 9월13일  
<http://www.iti.or.jp/kikan97/97umada.pdf>
- 『메가 FTA 활용 지원체제 급선무』 국제무역투자연구소, 2014년 9월5일  
<http://www.iti.or.jp/column023.htm>
- 『국제분업하에서 일본의 기업행동과 산업구조에 관한 조사연구』 경제산업성, 2014년 8월30일  
[http://www.meti.go.jp/meti\\_lib/report/2014fy/E004422.pdf](http://www.meti.go.jp/meti_lib/report/2014fy/E004422.pdf)

## 2. 일본의 주요 경제 일정 (9월)

일자	주요 행사 내용
1~5	• 제5차 한중일 FTA 교섭회의(베이징)
1~10	• TPP 수석교섭관 회의(하노이)
1	•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소기업 기본정책 소위원회(경산성)
2	• 원전 신규제기준의 적합성에 관한 심사회의(원자력규제위원회) •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에너지절약 소위원회(경산성)
3	• 내각 개편, 자민당 간부 인사 • 원자력 규제위원회 • 산업구조심의회 특허제도 소위원회(견산성)
5	•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전기요금 심사 전문 소위원회(경산성) •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가스 시스템 개혁 소위원회(경산성) • 7월 경기동향지수 속보치(내각부)
8	• 4~6월(2분기) GDP 개정치(내각부) • 7월의 국제수지(재무성)
9~10	• TPP 협상 미일 실무급 협의(도쿄)
9	• 원전 신규제기준의 적합성에 관한 심사회의(원자력규제위원회) • 핵연료 시설의 신규제기준의 적합성에 관한 심사회의(원자력규제위원회) • 8월 소비동향조사(내각부)
10	• 7월 기계수주(내각부) •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신에너지 소위원회(경산성)
10~12	• 세계경제포럼 하계 다보스회의(중국)
12~14	• 여성이 활약하는 사회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(도쿄) •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기본정책분과회(경산성)
12	• 7월 광공업생산지수 확보치(경산성)
16	• 경제재정자문회의 •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원자력 소위원회(경산성)
16~17	• 한중일 장어의 국제적 자원보호·관리에 관한 협의(도쿄)
17	• 원자력규제위원회 •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전기요금 심사 전문 소위원회(경산성) • 8월 방일 외국인관광객수(일본정부관광국)
18	• 원전 신규제기준의 적합성에 관한 심사회의(원자력규제위원회) •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제도설계 워킹그룹(견산성) • 8월 무역통계(재무성) • 제19차 산업경쟁력회의
22~27	• 日中경제협회 대표단 중국 방문
23~24	• 아마리 경제재정·재생대신이 TPP 미국 프로먼 USTR 대표와 협의
24	• 원자력규제위원회 •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가스 시스템 개혁 소위원회(경산성) •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자주적 안전성 향상·기술·인재 워킹그룹(경산성) • 지속 성장을 위한 기업과 투자의 대화 촉진 연구회(경산성)
25	• 원전 신규제기준의 적합성에 관한 심사회의(원자력규제위원회)
26	• 산업구조심의회 할부판매 소위원회(경산성) • 8월 소비자물가지수(총무성)